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전문공보담당자 부장검사 강백신

전화 055-640-4314 / 팩스 055-640-4345

보도자료

2021. 6. 8.(화)

제목

폭력조직간 세력 다툼으로 상대조직원을 살해하고 19년간 도피해 온 피고인 검거 및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검찰 기소중지자 정기 점검 중 **19년 간 도피생활을 해온 살인사건 피의자 A○○**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수사 및 주거지 입장 등 **치밀한 검거활동을 통해 체포하고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A○○은 **2002년 통영시내 폭력조직 A파의 추종세력인 ‘ㄱ클럽’ 조직원으로 활동** 하며, 피해자들이 속해있는 B파의 추종세력인 ‘ㄴ클럽’ 조직원들과 대립하던 중, **2002. 7. 14. 상대조직원들과의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같은 조직원인 공범들과 함께 야구방망이와 다이버 칼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 1인은 사망, 1인은 상해를 입게 함**
- 통영지청은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사법정의의 핵심인 ‘범죄자 필벌’을 위해 기소중지자 소재파악에 더욱 주력하겠음**

I 피고인 및 사건개요

- A○○ (37세), 범행당시 만 18세

- 통영시를 거점으로 하는 ‘ㄱ클럽’ 조직원과 ‘ㄴ클럽’ 조직원들간 세력다툼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중, 피고인은 ‘ㄱ클럽’ 조직원인 BOO등 7인과 공모하여, 2002. 7. 14. 피해자 甲, 乙을 칼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하여 甲을 살해하고, 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임
- 피고인은 2002. 7. 21. 경찰단계 참고인 조사 이후 도주하여 소재불명 되었고, 통영지청은 피해자 및 목격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 진행하여 2002. 9. 27. 피고인 및 추가 공범의 혐의를 확인하고 인지, 2002. 10. 2. 피고인에 대한 기소중지(지명수배)처분 하였음
- 통영지청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중지 이후 2021. 1.경까지 100회 이상 지속적인 소재수사를 진행하였음

II

주요 수사경과

- 2021. 4. 14. 기소중지자 점검 중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사실확인
- 2021. 4. 23. ~ 2021. 5. 13. 통신수사 및 주거지 입장으로 피고인 은신처 확인
※ 약 3주간 각종 사실조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통화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은신처 확인하고 치밀한 검거계획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함
- 2021. 5. 17. 피고인 체포 및 1회 조사
※ 코로나19관련 문진 및 발열체크 후 조사 진행, 구치소 입감 후 코로나검사 필 (음성 판정)
- 2021. 5. 18. ~ 2021. 5. 1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발부
- 2021. 5. 21. ~ 2021. 6. 2. 공범,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다수 조사
- 2021. 6. 3. 피고인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III

수사의의 및 향후계획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약 19년간 도피생활을 하여 장기미제로 남아 있던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끈질긴 소재추적과 적극적인 검거작업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기소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자에게 영원한 안식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통영지청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공범 등 사건관계인 다수 조사, 철저한 증거 및 법리분석으로 피고인의 공모 및 행위 분담 등 가담내용을 명확히 하여 혐의를 규명하였음
- 통영지청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향후 장기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파악에 더욱 주력 하겠음 